족속운동(집단개종, People Movement)과 군선교

(People Movement and the Military Evangelism)

정두영 목사

I. 서 론

A. 용어의 개념

본 논문에서 '족속(집단개종)운동'(People Movement)은 '대중운동'(Mass Movement)도 아니며, '집단개종'(Group Conversion)도 아님을 살펴보고, 아울러 '군선교'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약력 : • 고신대학교 신학박사 수료
• 프라미스 키퍼스 한국 총무

1. '대중운동' 대 '족속(집단개종)운동'

많은 사람들이 '족속(집단개종)운동'(People Movement)을 '대중운동'(Mass Movement)으로 혼동하고 있다. 그러나 족속(집단개종)운동은 대중운동이 아니다. 티펫(Alan R. Tippett)은 "이 운동의 구조는……대중운동은 아니다"(티펫, 1984: 57)고 했고, 전호진 박사도 "맥가브란의 집단개종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질 단위의 그룹들이 결단하여 신자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이것은 대중운동(Mass Movement)과는 다르다"(전호진, 1990: 270f)고 했다.

대중운동에서는 개인이 소외되고 소수가 무시된다. 그러나 족속(집단개종)운동은 개인의 결단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대중운동은 개인이 무시되고 다수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족속(집단개종)운동은 개인 결정이 연합된 복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소수의 중요성을 발전시키고 있다.

대중운동은 대량생산이다. 숫자가 우선이다.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둔다. 다수(대중) 그 자체를 힘으로 본다. 그러나 족속(집단개종)운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의 개념에서 다수(수확)를 원하시지만 단순한 대량생산이 아니라 각 개체의 책임의식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고, 사후관리(follow-up), 책임(제자훈련)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맥가브란의 성장 개념은 "온전하게 한다"는 질적 성장의 개념을 내포한다.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성장 개념은 단순한 수적인 성장만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며(엡 4:15), 믿음이 더욱 자라고(살후 1:3),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야 하며(벧전 2:2),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야 한다(벧후 3:18).

족속(집단개종)운동은 뒤에 언급되는 씨앗만 뿌리는 "탐색의 신학," "씨뿌림의 신학"과 같은 대중운동이 아니라 추수단을 들고 이야기하는 "추수의 신학," 혹은 책임의 선교이다.

2. '집단개종운동' 대 '족속운동'

맥가브란의 "People Movement"란 용어는 그의 이론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집단개종운동'으로 번역, 소개되었다.[1] 그러나 원래 맥가브란의 People Movement라는 용어에는 '개종'(Conversion)의 표현도 없으며 그 의미가 강하지 않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종을 시켜야만 하는 것이 맥가브란의 의도는 아니다. 맥가브란의 이론이 집단개종(Group Conversion)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People Movement'라는 용어를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Multi-Individual, Mutually Independent Conversion)으로 수정했다.

이 운동은 "집단에 대한 복음의 영향력을 높여 나가는 운동"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광순 박사는 '족속운동'으로 번역, 설명하고 있다.

1) 전호진 박사도 '집단개종운동'으로 번역했다.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본 군진신학"이란 글에서 보면 '집단개종'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전호진, 1985: 85-137 참고.

맥가브란 박사의 선교이론은 대체로 종래의 선교기지 중심의 선교에서 교회 중심의 선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즉, 선교란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을 병행하는 전략에 더해서 개개인의 개종이 아니라 집단적인 전체의 개종을 통한 기독교화를 이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책 「하나님의 다리」(The Bridges of God)에서도 하나님의 다리들, 곧 사람들을 연결하는 혈연과 지연 등의 연줄을 통해서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 전체를 한꺼번에 개종시키는 족속운동들이 하나님의 선교전략이라는 요지를 펴고 있다.

……'people'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가족을 포함한 씨족이나 부족, 또는 친족으로서 동질적인 공동체를 가리키며, 마태복음 28장 19절의 'nations'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개념이다. 다른 하나는 동일한 씨족이나 부족 및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로서 개인이 아닌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책의 독특한 표현인 'People Movement' 또는 'Peoples Movement'는 위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친인척, 씨족, 종족, 민족과 같은 혈연과 지연을 위시해서 종교와 계급 등을 망라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 맥이나 연줄 또는 연결망을 통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개종운동을 가리키며, 특히 개개인이 아니라 동질적인 집단 전체가 집단적인 결정을 하는 집단운동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를 집단개종운동 또는 심지어 인간운동이라고도 번역했지만 이 책에서는 성경의 용어를 빌려와서 조금 생경하지만 '족속운동'이라고 옮겼다(이광순, 1993: 10f).

필자는 'People Movement'를 '족속운동' 혹은 '집단 기독교화 운동'으로 번역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집단개종운동'이라는 용어를 바꾸든지, 바꾸지 않든지 간에 그 개념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족속운동'과 '집단개종운동'이라는 용어를 합하여 '족속(집단개종)운동'이라고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중세의 절대적인 교황주의로 돌아가자는 의도나 강제로 집단을 개종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순히 군대에서 집단으로 개종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도보다는 군선교를 통해서 군대집단에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도와 관련해서 생각하고자 한다.

3. '군선교'라는 용어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선교란 광의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사역이요, 협의적으로는 타문화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활동이다. 따라서 '선교'라는 영어단어도 복수형태 'missions'를 사용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교회들은 전도와 선교를 구별하지 않고 '선교'로 용어를 통일하고 단수 'mission'으로 통칭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교회도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고 전도활동을 '선교'라고 하여 '군전도'라는 용어 대신 '군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전호진, 1985: 90).

본 논문은 자유주의 입장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군대에서의 복음전파를 국내선교의 타문화권 사역(특수사회 선교)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군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한다.

B. 논문의 목적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원리는 맥가브란의 인도 선교경험에 의해 다져진 선교이론이다. 족속(집단개종)운동은 계급사회, 통제사회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집단 기독교화에 대한 경향은 맥가브란 박사가 체계화한 족속(집단개종)운동에 의해 괄목할 만한 이슈를 던지게 되었다. 집단개종 원리는 풀러신학교에서 수학한 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에도 소개되었고 그에 관계된 저서들이 계속 번역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비판이나 여과장치가 없이 그대로 소개되고 적용되었다"(간하베, 1986: 7). 이 원리는 교회성장학의 아버지, 맥가브란의 인도에서의 선교경험 토양 위에서, 서양의 기후 가운데 자라난 것이므로 한국교회는 이 원리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족속운동에 대한 이해의 토대는 분명히 계급사회, 통제적 집단사회다. 족속(집단개종)운동은 동일문화권, 집단통제사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군대보다 더한 계급의 장이 어디 있는가? 군대는 교회성장학 교수들이 관심을 가지는 전형적인 계급사회요 동질집단의 장이다. 이 점에서 맥가브란의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원리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한국군대의 군선교를 집단개종운동과 연결시키는 것은 맥가브란이 선교경험을 가졌던 인도의 계급사회보다도 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족속운동의 원리는 '방법'을 강조하고 군선교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과 군선교가 만나게 된다. 군대 조직사회는 맥가브란이 말하는 전형적인

계급사회요, 한국군대의 군선교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전군 신자화 운동을 통한 합동세례식은 전형적인 족속(집단개종)운동의 모델이 된다. 그러므로 집단개종운동에 대한 판가름은 한국군대를 대상으로 한 군선교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국군대를 시험대로 삼은 집단개종운동의 분석이요, 또한 집단개종 원리를 군선교에 적용함으로 군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이 "족속(집단개종)운동과 군선교"다.

본 논문은 족속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연 성경적, 신학적, 실제적으로 타당한가를 진단하는 분석, 평가를 통하여 원리와 실제에 있어서 족속운동의 원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것을 군선교 현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단순히 집단개종 원리를 소개하고 그 원리를 군선교 영역에 적용하고자 함도 아니요 단순히 군선교 전략을 세우고자 함도 아니다. 족속운동은 실제와 연관해서 재 적용되어야 한다.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은 이론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회행동보다 영혼구원에 관심을 가져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교회성장에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군대조직 내에서 군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집단개종운동의 의도 및 열정과 결과를 받아들여서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원리 가운데서 필요한 요소를 섭취하고 수용성이 높은 군대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군선교 현장에 재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자 함에 있다.

맥가브란에 의해 체계화된 동질집단에 의한 집단개종 원리에 내포된 양적 추구, 응답을 보이는 자에게 전념하는 것, 집단개종, 동질집단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등은 비판의 여지는

있으나 성경적이며, 이 원리의 열정과 수확을 한국군대의 선교현장에 적용하여 과거 전군 신자화 운동에 나타난 한국적 오순절사건임과 동시에 한국군대의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인 합동세례식과 군선교활동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 집단개종 원리에 근거한 군선교전략을 수립하여 군선교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본 논문의 논지를 여자적으로 말하면, "교회성장학의 핵심이 되는 맥가브란(Dr. McGavran)의 족속(집단개종)운동(People Movement)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군대와 같은 계급사회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성경적인 선교이론이므로 한국교회는 새로운 시각으로 집단개종운동을 바라보고 집단개종운동의 정신, 의도와 열심을 받아들임으로 군선교전략을 수립하여 군선교현장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C. 연구방법 및 한계

전군 신자화 운동으로 시작해서 합동세례식으로 이어지는 한국군대의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에 관한 것은 육군본부 군종감실 자료와 군목을 역임한 선배들의 간행되지 않은 개인 소장 자료들도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군선교의 일선에서 실제적으로 합동세례식 등을 주관했던 필자 자신의 경험과 자료들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군선교전략은 군선교에 관한 자료들과 필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본 자료들에 근거했다. 교회성장학은 이미 선교 분야의 제측면에서 다각적이고도 광범위한 원리들을 연구, 체계화했지만 교회성장학의 핵심과 기초는 족속(집단개종)운동이다. 족속(집단개종)운동에 대한 평가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적용은 군선교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

"족속(집단개종)운동과 군선교"라는 제목과 같이 II장에서 족속(집단개종)운동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족속(집단개종)운동과 관련된 한국 군선교 역사와 활동을 분석하되 한국적 족속(집단개종)운동인 합동세례식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집단개종 원리 가운데 적용 가능한 내용을 군선교에 적용,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군대의 군선교 상황과 차이가 있는 집단개종 원리는 재수정, 재적용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II. 족속(집단개종)운동

족속(집단개종)운동은 맥가브란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명품이 아니다. 맥가브란 이전에도 족속(집단개종)운동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족속(집단개종)운동 이전에 이루어졌던 집단개종의 예들을 살펴보고 족속(집단개종)운동(People Movement)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족속(집단개종)운동

1. '동질집단(단위)'

맥가브란은 '동질집단(단위)'(Homogeneous Unit)을 중요시한다. 맥가브란의 족속운동을 이해하려면 동질단위를 알아

야 한다. 맥가브란의 동질단위는 소속원들이 공통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한 부분을 말한다. 즉, 동질단위는 언어, 문화, 인종 등 서로 같은 부류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하나의 그룹단위를 말한다. 동질단위는 동질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동질집단을 형성하는 동질의 성격 및 요소를 말한다. 이 동질요소, 동질단위를 내포하고 있는 동질집단은 대집단에 대해 한 부분이 된다.

맥가브란의 동질집단은 폭넓게 응용될 수 있다.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을 위하여 동질집단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개발이 가능하다. 다양한 동질집단 소그룹의 개발은 충분히 가능하며 우리의 사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동질집단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맥가브란은 동질집단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와 같이 문화적, 사회적 계층과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집단보다는 동질집단에서의 활동이 자연스럽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도 마찬가지다. 맥가브란은 "사람들은 인종과 씨족변화가 최소화될 때 가장 빨리 기독교화된다(McGavran, 1968/1975: 23)고 하면서 동질단위는 교회성장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이며, 동질단위의 발견이야말로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여 동질단위를 "하나님의 다리"(The Bridges of God)라고 말한다. 맥가브란에 의하면 "하나님의 다리"를 사용하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 초대교회는 그 다리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보통사람들 가운데서 출발하였다. 그들의 다리들은 보통사람들, 즉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을 위한 것이었다……
>
>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바울이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다리들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그는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그의 다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아갔고 또한 그들이라는 다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다……
>
> ……선교사들은 다리를 발견하고(또는 다리들을 만들고) 이 다리들을 통하여 문화 교류적인 복음전파를 수행한다(맥가브란 1987: 568-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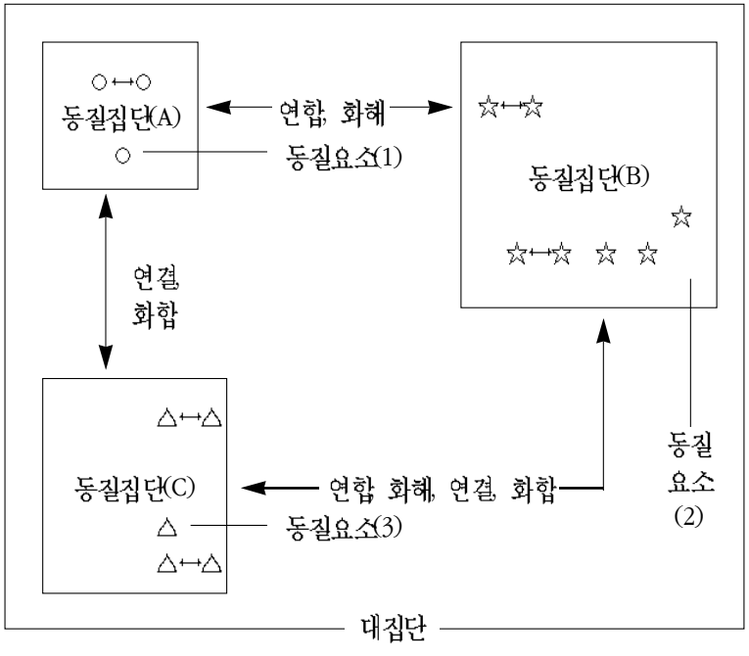
그러므로 "다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들을 사용하라"는 표어를 말한다. "확대가족"이 제시하는 거미집 관계에서 "하나님의 다리"를 발견하라고 한다. 이 거미집은 가장 친밀한 관계가 성립되어 신자가 인접환경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증거하는 데에 자연스런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곳이다. 초기 신약교회에서 회당은 교회의 초기 확장에 있어서 다리가 된다. "하나님의 다리"는 로버트 렉커(Robert Recker)의 말대로 단순한 구조적 관계를 떠나서 그곳에서의 삶의 모든 행동을 말한다(렉커 1986: 143).

동질단위를 하나님의 다리로 보고 동질집단을 구성하게 되면 동질집단은 대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대집단이 각각의 동질단위로 구성된 동질집단으로 이루어진다면 동질요소에 의한 동질집단의 형성은 분파주의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런데 대집단이 동질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동질집단의 원리는 아니다.

동질집단의 원리는 나름대로의 이점을 가지고 출발했다. 동질집단의 교회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2]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동질요소와 동질집단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므로 결국 대집단 전체를 화합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동질집단 원리의 목적이 최종적인 동질집단의 형성은 아니다. 그렇게 시도되거나 그렇게 이해된다면 양자는 잘못이다. 이 점을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의 [도표 1]과 같다.

[도표 1] 동질요소에 의한 동질집단으로 구성된 대집단



2) 자신들의 교회는 동질집단 원리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로서,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자신들의 교회를 말한다.

2. '집단개종'

맥가브란의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은 집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집단을 통해서 역사하며 기독교의 능력적인 역사가 일어난 때는 집단 내부에서 일어난 때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집단을 성장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집단들을 제자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맥가브란은 집단개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정한다.

> 인종 집합체나 개인주의적인 문명을 제외하고는 지나간 19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개인적인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해오지 않으셨으며 또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지는 않다. 하나님은 민족을 제자로 삼아왔다.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 구성원들이 자기의 집단을 떠나 기독교 신앙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꺼번에 여러 가족을 묶어 수백 명씩 개종시키셨다. 하나님은 집단개종운동을 이용하셨다. 그것은 기독교 교회가 성장해 온 일반적인 방법이다(McGavran, 1968/1975: 107-108).

새로운 백성 중에서 자기 집단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옮겨온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집단을 통해 연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신 것은 집단개종운동을 사용하신 것이며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성장을 이룩한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McGavran, 1968/1975: 107-108).

이야기는 너무 뻔한 것이어서 두 번 다시 되풀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저 그것에 주의를 하고 있으면 된다. 기독교 국가는 집단개종운동에서 일어났다. 인구의 대다수가 명목상으로라도 크리스천이 된 대륙은 일련의 오랜 집단개종운동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대륙뿐이었다(McGavran, 1968/1975: 38).

집단개종에 의한 선교를 강조하면서 미래의 기독교 성장은 집단개종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역설하였다. 회교신자들에 대한 선교는 집단개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1966년에서 1968년,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수만 명의 회교도들이 이를 증명하였다. 이들 많은 사람들은 한 방울 한 방울씩 교회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교회에 가입하였다. 전 대가족, 소수의 혈통과 마을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슬람이 타종교에 저항하는 것은 신학적인 것보다 사회적인 것 때문이라는 데 있다. 만약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집단개종은 복음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것이다(McGavran, 1968/1975: 299).

집단개종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중이 생각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대중운동"(Mass Movement)과는 다르다. 집단개종의 방법이 가진 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투(Latourette) 교수도 이 점에 동의하였다.

더욱더 우리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그룹들을 인도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종종 개신교적, 그리고 19세기적 개인주의 사상을 가지고 남녀를 하나하나 가족, 마을, 혈족에서 떼어 놓았다. 그 결과로 그들은 자기의 가족과는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고 적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회심'이란 완전히 변화된 생활로서 개인과 창조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또한 경험에 의하면 가족, 마을, 계급 혹은 부족이라는 전체 자연 그룹이 신속하게 신앙을 가지게 되면 더 좋다. 이것이 개인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고 공동체의 전체 생활을 더 쉽게 기독교화시켜 준다(Latourette, 1936: 159).

결국 집단개종운동은 집단이 가진 장점을 발견하여 집단적인 기독교화를 시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 이어서 집단개종운동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족속(집단개종)운동'

맥가브란 박사는 자신의 인도에서의 30년간 선교사역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을 역설했다. 맥가브란은 특별히 자신의 책, 「*The Bridges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s*」에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방법이 선교기지 접근법이 아니라 교회설립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선교기지 접근법은 이미 파고들어간 대중 집단 내에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맥가브란의 방법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대중 집단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맥가브란은 선교에 있어서 집단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랄

프 윈터(Ralph D. Winter)는 자신이 구분한 선교역사 가운데 제1기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가 해안 지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제2기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가 내륙 깊숙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했다면, 제3기 맥가브란은 "숨겨진 사람들"이라는 비지리적 범주, 복음으로부터 고립된 대중 집단 선교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맥가브란은 인도 선교에 있어서 사회적 장벽의 심각성을 고민하고서, "하나님의 다리"가 되는 "동질집단"을 발견하였다.

전호진 박사는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을 사회학적 원리, 개종방법의 문제, 수용성의 원리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전호진, 1990: 272-275). 사회학적 원리라는 것은 전도의 장애는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것이며, 개종방법에 있어서는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Multi-Individual, Mutually Interdependent Conversion)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수용성의 원리는 각각의 동질단위는 복음을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선교자원 투입은 수용성이 높은 곳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a. "사회적인 장벽을 헐지 않고……"(Without Crossing Barriers……)

"사회적인 장벽을 헐지 않고……"란 맥가브란 박사의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 원리에 있어서의 대전제다. "사람들은 인종적, 언어적, 계급적 장벽을 헐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맥가브란, 1987: 337)는 것이다.

인간 존재는 그들 자신들의 사회 주변에 장벽들을 건설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각 사회가 살아가고, 말하고, 옷 입고, 일하는 방식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들과는 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진 모자이크와 같으며, 각 조각은 다른 조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종종 불쾌하게 보이는 각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맥가브란, 1987: 337).

비기독교적인 자신의 사회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사회 문화 속에 머무르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 연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이다. 피선교지 상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끌어내려고만 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아래의 글은 문화 상황에 대한 방법적인 면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의 환경에서 이탈해야만 한다면 그는 회심하는 것보다 문화이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결신자들이 너무 완전히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전통에서 이탈하며 외국인화되어서 그들은 가정에서 버림받으며 사회활동 분야도 상실하며 때로는 생활수단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주님은 결신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회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만일 우리의 선교방법이 결신자들을 그들의 사회에서 이탈시키고 사회적 고립과 적응 불능자로 만든다면 그 선교방법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이다(티펫, 1984: 62-63)

결신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기독교 형태를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티펫, 1984: 68).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신들의 문화환경에서 이탈해야 된다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선교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3)]

3) 이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 네비우스(Nevius) 선교방법이다. 초기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선교에 대한 성과는 선교방법에 있어서 네비우스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Ⅰ」(서울: 기독교문사, 1989), pp. 218-225 참고.
네비우스 방법은 네비우스 박사(Dr. J. L. Nevius)가 중국 산동성에서 선교하면서 적용하고 있었던 자기의 논문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1885)[선교교회들의 개척과 성장]에서 제시한 방법이다. Peter Beyerhaus, *Die Selbstandigkeit der jungen Kirche als Missionarischen Problem*(Wuppertal-Baumen: Verlag der Rheinischen Missions-Gesellschaft, 1959), p. 220 참고.
네비우스 방법은 출발점에서부터 원주민교회(The Native Churches)들의 독립을 강조했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에는 중국인 자신들에 의해 복음화되어져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중요한 원리는 "자립"(Self-Support), "자기증식"(Self-Propagation), "자치"(Self-Government)이다. 네비우스 방법에 대해서는 존 네비우스 「네비우스 선교방법」 김남식 역(서울: 성광문화사, 1990); Charles A.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전 호진, "네비우스의 고유원리," 「한국교회와 선교」 전호진 편 (서울: 정음출판사, 1983), pp. 157-185; 전 호진, 「한국교회 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서울: 성광문화사, 1993)을 참고.
네비우스 방법과 비슷한 "자국인 선교운동"(The Native Missionary Movement)에 관해서는 인도선교를 예로 쓴 K. P. 요하난, 「다가오는 세계선교의 혁명」 조은혜 역(서울: 죠이선교회, 1990)을 참고.

b.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Multi-Individual, Mutually Interdependent Conversion)

집단개종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결심에 관한 것이다.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의 출발점에 있는 가정은, 거대한 교회성장을 향한 방법이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이라는 것이다. 맥가브란이 말하는 집단개종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중운동"(Mass Movement)과는 다르다. 대중운동에서는 개인이 소외되고 소수가 무시될 수 있으나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은 개인의 결단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에서의 집단은 개인 자신의 특성이 전체 속에서 유지되는 개인의 연합이다.

대중운동이 개인 각자의 결정과 관계없이 다수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은 개인 결정 이후에 개인 결정의 상호의존을 통해 개인이 연합한 복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복수 개인"이라는 용어가 적용된다.

교회성장의 기초는 개인들의 회심이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개인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이 성령이 사람들을 그룹으로 가족적으로 그리고 종족으로 회개에 인도하신다는 성서적 진리를 모호하게 할 때가 있다.

이 운동의 구조는 복수 개인이며 대중운동은 아니다. 교회의

복수 개인적인 구조는 회중,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친교와 같은 친밀하고 현대적이고 집단적 용어 가운데서 인식하게 된다(티펫, 1984: 57).

족속(집단개종)운동은 소수의 중요성을 발전시키고 있다. 다양한 소그룹의 발견과 개발이 족속(집단개종)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것을 종합한 것이 맥가브란의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이다. 족속(집단개종)운동은 "대중운동"에서 "집단 회심"으로, "족속(집단개종)운동"으로, "다수 개인적 회심"으로, "다수 개인의 상호의존적 결정"으로 변천되었는데, 맥가브란은 "충성심의 집단전이"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다리」(The Bridges of God)에 나타난 맥가브란 박사의 주장, 곧 낡아빠진 선교접근 방법은 이제 대중운동적인 선교접근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집단개종(Group Conversion)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왔다. 그래서 그 이후의 출판물에서 그는 자기의 주장이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임을 역설했다. 그러면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은 무엇인가?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내가 확신하는 것은 개종이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하여진 외로운 개인의 결단이 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상호적인 애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많은 개인들의 결단일 때 훨씬 훌륭한 개종이다. 복수-개인적이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상호의존적이라는 용어는 결단을 행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친숙하게 알며 다른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복수-개인적 결단은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결단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혼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행할 수 있게 한다(맥가브란, 1987: 495-498).

이 집단결심은 개인회심과 복수의 상호의존적인 회심이 합해진 것이다. 개인의 결정들이 상호의존되어 연합된 복수(집단)의 회심인 것이다.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 집단개종에서 중요한 문제는 개인결심이 아닌 단체결심이 가능하느냐의 문제이다. 맥가브란은 대중운동에서 결심은 공유결심(Shared Decision)이라 하는데 이것은 공동체의 제약이 강하여 개인의 결정권이 약한 사회에서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 의논하여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결심을 다원적 개인회심(Multi-Individual Conversion)과 상호의존적 회심(Mutually Interdependent Conversion)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결심할 때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이 자기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예수 제자 안드레와 같이 결심을 서로 서로에게 알리고 또 다른 삶의 결심에 관심을 표시하는 것이다(전호진, 1985: 109f).

개종방법의 면에서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을 요약하면 동일한 집단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결심의 결과로 사회적 이탈 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신자가 된 뒤에도 불신친척들과 완전한 접촉을 유지하며 그 집

단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수년에 걸쳐 적절한 교육 후에 동일한 결단을 하게 하고 그 집단의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이 전혀 문제점이 없거나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은 실제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용어 해설에 끝나고 있으며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을 합법화시키는 용어라는 생각을 줄 수도 있다. 개인이면 개인, 복수이면 복수에 의한 명확한 결정보다 오히려 개인과 복수를 접목시켜서 혼돈을 줄 수도 있다.

개인이냐 복수냐에 대한 명확하고도 절대적인 해답을 얻기란 사실 어렵다. 복수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복수의 방법은 좋은 것이 된다. 그러나 복수의 선교대상은 복음에 대해 저항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끌어내어야 할 경우도 있다. 모슬렘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복수-개인의 결정이 되어야 하지만 모슬렘 복수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상황이면 개인의 방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 그러한 연합과 합일점에 도달하기란 어렵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그 집단이 자신의 사고구조와 삶의 형태를 송두리째 버리지 않고 복음이 자신의 문화적 언어로 전달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런 시각에서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집단개종운동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개종의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인데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방법이다.

c. 열린 문을 향하여……: 수용성(Acceptability, Responsibility)

수용성의 원리란 어떤 토양이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수용적인가를 연구하여 수용성이 강한 옥토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는 데에 있다. 각각의 집단은 복음을 수용하는 정도가 다르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수용성이 높아서 많은 한인교회를 설립했다. 그러나 중국인들, 일본인들은 수용성이 높지 못하다. 새로운 정착지, 여행자가 많은 곳, 피정복지, 민족주의가 강한 사회, 문화변동이 심한 곳에는 수용성이 높다(전호진, 1990: 273).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토양검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선교의 결실과 수확을 위하여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사람들에게 먼저 가게 된다. "신약교회는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다(맥가브란, 1987: 37).

B.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성경적 근거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의미 3가지는 "그대로, 더불어, 열린 문을 향하여……"이다. 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족속(집단개종)운동이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아오는 것은 그 원리가 성경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이다. 족속(집단개종)운동에 관련된 모든 연구는 주로 사회적, 문화인류학적 그리고 선교

신학적으로만 접근해 왔다. 그로 인해서 족속(집단개종)운동은 성경적 기초가 약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그러므로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성경적 근거[4]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 "사회적인 장벽을 헐지 않고……"(Without Crossing Barriers……)

"사회적인 장벽을 헐지 않고……" 개종하도록 유도하는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자. 마가복음 5장 1-20절을 보면 귀신들린 사람에 대한 귀신축출의 기사가 나온다. "귀신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18-19) 집으로 돌아가 일어난 일을 "네 친속들에게 고하라"(:19) 하시므로 귀신들렸던 자가 그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겼다(:20).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결론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는 방탕한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의 집에 속해 있으며 자기가 소속했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해야 했던 것이다. 가족단위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수가 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12제자들과 같이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다. 수가 성을 떠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그녀가 속한 수가 성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그녀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교량역할을 했다(요 4:29-39).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전도라고 생각해서만은 안 된다. 예수님의 수가 성 여인에 대한 전도는 수가 성에 대한 그룹전도를 염두에 두신 관건이었다. 수가 성 여인은 수가 성 그룹(사회)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 의식(특히 할례)을 준수해야 하느냐 하는 토의와 결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메워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8-11).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19-20)고 결론을 내렸다. 베드로의 판단과 같이 율법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그룹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의 교회가 아닌 그들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과 같다. 야고보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고 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서 억압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문화형태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비본질적인 문화적, 사회적 장벽을 헐지 않고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결국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의 원리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4) 그 공격에 대한 성경적 변증서가 바로 알란 R. 티펫의 *Church Growth and the Word of God; The Biblical Basis of the Church Growth Viewpoint*(1970)이다.

부르신 그대로 지내는 방법이다.[5]

2.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Multi-Individual, Mutually Interdependent Conversion)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의 기초 원리는 개인들의 회심이다. "계시록이 구속받은 자들의 합동세례식을 인정하듯이"(티펫, 1984:58) "[족속(집단개종)]운동의 구조는 복수 개인이며 대중운동은 아니다"(티펫, 1984: 57).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두령을 중심으로 모였다(신 1:13-18). 이것은 핵가족 단위를 넘어선 확대된 혈족의 가족단위였다. 요나서 3장을 살펴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높은 자들로부터 낮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집단개종을 했다. 왕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5) 관련되는 성경 구절은 아래와 같다.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전 7:8)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17) "[할례자나 무할례자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20) "[종이라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24) "[처녀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26) "[남편이 죽어도]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40) 총각 때에는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결혼하고 나면 총각 때가 좋은 것 같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를 가지고 싶고,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없을 때가 좋은 것 같이 생각된다. 총각도 좋고 결혼해도 좋고 아이가 없을 때도 좋고 아이를 가져도 좋다. 모두의 때, 그 모습이 좋다는 말씀이다. "내 모습 이대로"(찬송가)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 현재 소속된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대로'의 방식은 미국의 방식이다. 자유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유도한다. 탈영을 시도한 카투사와 상담을 하는데 다시 미군 부대에 오고 싶다고 했다.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군인은 군복을 입은 군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군인계급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군인교회는 너무 계급을 의식해도 안 되고 너무 계급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함께 회개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 자신의 친척이었다(맥퀼킨, 1985: 70). 12제자들은 친척 단위를 포함했으며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 초청하고 단결을 도모했다.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다(요 1:40-41). 제자들은 선택받은 그룹이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 족속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창녀와 같이 마을에서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온 것을 보면,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 같다. 문제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자 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칠십 인을 파송할 때 '집'(눅 10:5-7)과 '동네'(:8-11)가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대해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선교명령을 보면 족속(마 28:19; 눅 24:47)이나 민족에 대해 말씀하셨다.

선교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는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의 성경적 근거가 많이 나타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1:13-14, 2:1, 48, 8:5-8)라는 말씀은 복수 개인의 그룹행동을 말한다. 예루살렘교회에서 교인들은 설교와 말씀과 훈련과 친교와 기도를 그룹으로 모여서 했다(2:42). 사도행전 4장 32-37절을 보면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모습이 나온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32).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두면 사도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주의

가 아닌 복수-개인적이고, 명확히 상호의존적인 신앙공동체적 삶의 모습이었다.

이방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8:5-9, 9:35-42).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로 인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병고침]를 보고 주께로 돌아[갔다]"(:35). 또 베드로가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병들어 죽은 여인을 기도하고 살렸다. 이로 인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다]"(:42).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경우는 집단개종이다. 16장을 보면 마게도냐 환상 이후에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청함을 받는다. 그리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15)게 된다. 계속해서 구원의 방법을 묻는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31) 하고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32) 것은 집단개종의 형태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고전 1:16). 사도 바울은 한 도시에 들어갈 때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찾아갔다(13:14, 14:1, 17:1-2, 18:4, 19:8).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3. 열린 문을 향하여…… : 수용성(Acceptability, Responsibility)[6]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 13:3-23)에서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은 거리에 씨를 뿌리지 않고 밭으로 나간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 토양, 땅이다. 중요한 점은 씨를 뿌릴 때 밭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다. 농사에 있어서 씨 뿌리는 자와 기후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씨 뿌리는 방법이나 기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변수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양이라는 것이다. 복음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많은 수확을 거두려면 토양시험을 통하여 수용성이 강한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다.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수확의 기쁨을 주신다(시 125:5-6).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거부하는 지방에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다른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눅 9:5). 사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행 13:51).

6) 수용성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는 IV.B에서 논술할 때에 함께 충분히 제시될 것임.

C. 족속(집단개종)운동에 대한 평가

맥가브란의 족속(집단개종)운동이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아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한 내용들을 단순히 배척할 것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봄으로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정신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족속(집단개종)운동이 비판을 받아온 이유를 살펴보면, ① 맥가브란의 족속(집단개종)운동은 그의 오랜 선교경험의 산물이다. 맥가브란은 단순히 선교 이론적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선교경험을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체험했다. 여러 번 자신의 선교방법을 변경하면서 선교사역을 했다. 그 결과 그는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확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닫고 족속운동의 원리를 통한 "하나님의 다리"

를 발견할 것을 역설했다. 그런데 선교사가 선교현지에서 당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비판하려고 하면 집단개종운동의 진정한 정신을 깨닫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② 맥가브란은 철저한 계급사회가 존속되고 있는 인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보다도 계급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선교이론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계급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집단개종 원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수도 있다.

③ 족속운동의 원리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선입관념과 인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④ 보수주의 신학계는 개인구원에 머물러 있고 집단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이 부족했으므로, 족속(집단개종)운동이 새로운 사회구원을 강조하는 시도인 것으로 오해했다. 그러나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집단에 대한 복음적 접근의 면을 이해해야 한다. 맥가브란의 선교학적 공헌 중의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집단 차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서구 선교사들과 전도자들 대부분의 특징이 되어 온 것으로, 회심을 위해 지나치게 개인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다양하게 제공했다. 맥가브란은 이와 같은 정책을 "조류에 거스르는 한 사람씩" 얻는 방식이라고 표현했다.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원리들은 집단 속의 개인에 대한 선교 방법들이다. 이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 보면, ① "사회적인 장벽을 헐지 않고……"라는 대전제는 접근 방법으로서, 상황의 복음화다. 이는 우리가 선교에서 너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렸던 단순한 행동과는 달리 상황 자체를 복음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세상을 악하게만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자들로 본 것이다.

②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이란 개종의 방법으로서, 집단을 새로운 시각으로 본 것이다. 집단은 악할 수 있고 집단은 복음에 저항적일 수 있다. 말세의 권력 집단이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족속(집단개종)운동은 집단을 복음전파가 가능한 좋은 수단으로 보고 집단을 통한 복음전파를 말하고 있다.

③ 수용성의 원리는 추수의 신학과 연관되는 선교의 대상을 찾는 방법으로서, 단순히 쉬운 길을 찾아가고 수확이 많은 곳만을 찾아가고자 하는 안일한 선교 방법이 아니라 많은 수확을 거두는 열심과 추숫단을 들고 돌아와야 하는 책임이 포함된 선교에 대한 열심과 책임을 묻는 이론이다.

오늘날 자유주의, 급진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교신학이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 순수한 복음을 사회관심 내용으로 대치하고, 사회정의, 사회참여를 복음 선교와 대치한 것과는 달리 맥가브란의 족속(집단개종)운동을 중심으로 한 풀러신학교의 선교이론은 개인전도, 소그룹운동을 통한 개인에 관한 관심 및 사후처리, 양육,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과 병행해서 집단과 사회에 대한 복음적 관심을 나타냄으로 집단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복음주의적 선교방법을 시도하였다. 특별히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책임을 감당하고자 한 교회성장에 대한 열정주의자들이었다.

III. 한국군대의 족속(집단개종)운동

A.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장으로서의 군대집단의 특수성

족속운동은 계급집단을 통해서 복음전파가 가능한 대상을 연구한 이론이다. 그러므로 족속운동이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전개된다면 문제가 있다. 군대집단은 이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복음전파는 복음을 듣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7] 군대집단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군대집단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효과적인 군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다. 군선교에는 군대상황에 맞는 선교방법이 요구된다.

첫째, "군대[집단]는[은] 하나의 동질집단이다"(전호진, 1985:107). 군대집단은 분명히 부인하지 못할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군대 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군인이라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군대집단은 분명히 맥가브란이 말하는 동질집단에 속한다. 맥가브란이 동질단위를

7)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 관심, 희망, 두려움 등을 염두에 두신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셨다. 물을 긷기 위해 마을 우물에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충동적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은 돈에 관한 주제를 놓고 말씀하셨다. 군중들 사이에 많은 농부들이 있음을 보신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귀신들려서 인격이 파괴된 사람에게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셨다. 의사소통의 귀납적 방법은 청중을 아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대상이 개인인지 집단인지를 파악해서 그들이 알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영역에서 시작해야 한다. 집단이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 공동체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Gibbs, 1990:149).

"하나님의 다리"라고 한 것처럼 군대집단의 동질성은 "군선교의 다리"가 될 수 있다.

둘째, 군대집단은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군대는 크게는 병, 부사관, 장교로 구분되어 있다.

셋째, 군대집단은 집단개종이 가능한 명령, 통제사회이다. 군대임무는 상급자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하부구조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러므로 상급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면 그로 인해 그 부대에 미치는 복음적 영향력은 대단하다.

넷째, 군대집단은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하는 목적사회다.

다섯째, 군대집단은 복합적인 거미줄 구조의 사회적 집단이다. 군대는 단지 상하, 수직적인 조직만이 아닌 복합적인 거미줄 구조의 사회다. 반드시 상하 계급관계만이 아닌 수평적인 집단구조를 통해서도 복음전파가 가능하다.

여섯째, 군대집단은 철저한 통제사회로 복음의 수용성이 강한 집단이다. 집단개종운동의 수용성의 원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군대는 분명한 황금어장이다. 군에 입대하면 전원 영내생활을 통해 통제를 받게 되고 군인 개개인에 대한 임무가 부여된다. 집에 갈 수 없고 영내에서 고도의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에 얽매이게 되며 단순한 삶의 패턴이 주어지게 되므로 복음의 영향력이 쉽게 작용될 수 있다.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맥아더 원수의 말과 같이 일선 지휘관들은 대개 많은 병사들을 맡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힘을 절실히 느낀다.

일곱째, 한국 군대집단은 수많은 복음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황금어장이다.

여덟째, 한국 군대집단은 선교 대상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선교 대상자가 찾아오는 이점을 가진 "어드밴티지 선교" (Advantage Missions)의 장이다.

B. 한국군대의 족속(집단개종)운동

1. 전군 신자화 운동

"전군 신자화 운동," 이 말은 한국군이 낳은 새로운 용어이며, 동서고금 세계의 역사상 유래 없던, 국제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놀라운 운동이라고 보겠다. 글자의 뜻이 말해 주듯이 우리나라의 60만 대군을 모두 신자화하자는 거대한 운동이다(육군본부, 「팜플렛 165-19(1975. 9. 30): 육군군종사」, p. 69). 전군 신자화 운동은 복음적 동기라기보다는 안보적 동기 및 선도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기독교 신자가 아닌 야전군 사령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첫째, 전군 신자화 운동의 동기는 1968년 1월 21일 김신조(후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됨)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 및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안보와 군 정신무장 강화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군대 정신무장의 구심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서 전 지휘관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작되었다. 1969년 한신 대장이 1군 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반공을 위한 정신무장 강화는 전원 신자를 만드는 데 있다고 판단, 당시 1군 군종참모인 대령 한준섭 목사에게 군종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둘째, 한신 대장은 군내에 보호사병 즉, 출감자, 이상성격자, 무의탁자, 극빈가정 사병 등 군내의 문제대상 사병이 132,000명이나 된다는 보고를 받고 132,000명이면 당시 1개 사단 병력인데 군의 문제 사병이 1개 사단의 병력이나 된다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며 나아가서는 군내의 큰 위험요소가 되는 것이니 이 문제 사병 해소를 위해 그들을 전부 교회로 보내 전원 신자생활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성실한 신자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군목들은 보호사병 선도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때마침 1.21사태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으로 후방국민이 방위성금을 군에 보내왔는데 1군 사령관 한신 대장은 그 중 550만 원으로 오토바이 53대를 구입하여 1군 산하 군목의 기동용으로 지급해 주며 군종활동 강화를 요구했다. 1970년 9월 16일 1군 사령부에서 사단급 이상 감독 군종장교 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신자화 운동에 대한 지침을 정식으로 하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운동은 1971년도 1군 군종업무 운영강화지침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전군 신자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한신 대장의 지시는 예하부대 지휘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당시 6군 단장 이소동 중장은 1971년 7월 21일자로 하달된 지휘서신을 통하여 전군신자화 운동을 지시함으로써 6군단 예하부대에 선교의 큰 성과가 있었다(육군본부, 「팜플렛165-19(1975. 9. 30): 육군군종사」, pp. 69f).

전군 신자화 운동으로 당시 군대 내에 신자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을 다음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육군본부, 175:300).

가. 종교별 신자현황

연도 \ 종파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계
70	78,176	15,694	13,370	2,793	110,033
71	128,782	22,908	21,756	908	174,354
72	181,000	32.121	28,678	1,547	243,346
73	199,623	39,126	38,524	1,827	279,100

나. 세례현황[8)]

내용 \ 연도	70	71	72	73
횟수	183	303	552	402
인원	1,130	7,320	42,358	44,683

국방대학원 교회를 시무한 김흥태 목사는 "군 신자화운동이 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군 신자화 운동으로 말미암아 군 전력이 강화되고 사고가 예방되며 승리하는 부대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김흥태, 1985:90)고 했다. 육군본부 헌병감실 분석에 의한 신앙유무별 사고 발생률(육군본부, 1985:84)을 보면 아래와 같다.

신앙유무별 사고 발생률

구분 \ 유형	발생자	근무이탈	폭행	자살	총기강력	경제범	군용물	안전사고
무신앙자	164	107	15	4	2	4	2	20
신앙자	77	44	9	2	0.2	2	1	10
무신앙자 사고율	2.1배	2.4배	1.7배	2배	10배	2배	2배	2배

8) 다른 통계에 의하면 1970년 9월 16일 전군 신자화 운동을 시작하여 3년간 실시한 세례식은 128회로서 97,264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육군본부 군종감실 편, 「군종」 p. 2 참고.

전군 신자화 운동이 한창일 때 당시 육군 헌병감이었던 윤장근 소장은 아래와 같은 통계를 제시하여 전군 신자화 운동이 사고 감소를 가져왔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신자 대 사고자 수 증감현황(육군본부, 1975:85)

연도	군 신자 수	군 사고자 수
1970	110,030	19,248
1971	174,354	14,708
1972	243,346	11,200
1973	279,102	9,041

이와 같이 신자 수의 증가가 군 사고 감소의 결과로 나타나자 육군은 1974년도 인사사업 중에서 1973년도 48% 선의 신자 수를 50%로 증가시키기로 정책사업을 정하고 전군에 시달한 적이 있다(김기태, 1985:305).

전군 신자화 운동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들어 평가해 볼 수 있다.

① 불신지휘관에 의해 전군 신자화 운동이 의도되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군이 신자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전군 신자화 운동이 순수한 복음운동, 전도운동만은 아니었다. 당시 전군 신자화 운동을 후원했던 지휘관들이 생각하는 바는 교계와 군목이 생각하는 바와는 차이가 있었다. 전군 신자화 운동이 시작되던 1971년 보병 제26사단장이었던 김진구 장군은 이등병, 일등병들에게 전군 신자화 운동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머뭇거리면 "김일성을 때려잡으

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가곤 했다는 것이다.

③ 의도는 어디서 출발되었든지 당시 선배 군목들은 전군 신자화 운동의 붐을 좋은 기회로 삼고 열심히 뛰었다. 사실 장병 복음전도의 결실은 일선을 뛰는 군목에게 달려 있다.

④ 군목이 군선교의 고유 업무에 충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군목은 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세례식을 베풀고 각종 식순에서 기도하고 병사들을 전도하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다.

⑤ 전군 신자화 운동은 지휘관을 포함한 부대 전체가 종교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그야말로 전군을 신자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⑥ 전군 신자화 운동은 기독교만의 운동은 아니었다. 소수의 천주교 영세 및 불교의 수계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⑦ 전군 신자화 운동은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세례식을 태동시켰다. 전군 신자화 운동은 뒤에서 살펴볼 합동세례식의 방법을 만들어 냄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엄청나게 많은 장병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

⑧ 전군 신자화 운동이 이 운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중단됨으로 인해 잃게 되는 것이 더 많게 되었다. "값싼 은혜"를 부정적으로만 봄으로 값비싼 추수단을 버리게 된 셈이다.

⑨ 전군 신자화 운동은 그야말로 집단개종운동의 전형적인 스타일로서 족속원리를 수용, 적용 가능한 운동이며, 이것은 집단개종 원리가 현재도 군에서 가능한 일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⑩ 앞으로도 전군 신자화 운동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는 무신앙자를 기독교로 흡수하는 이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군 신자화 운동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방법을 고려한 전군 신자화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2. 한국군대의 족속(집단개종)운동: 합동세례식

a. 전군 신자화 운동의 합동세례식

한국군대의 군선교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업적은 "전군 신자화 운동"이며 전군 신자화 운동의 결실은 합동세례식으로 나타났다. 전군 신자화 운동에서 가장 손꼽을 수 있었던 일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으며 세례 대상인원이 많았으므로 합동세례식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전군 신자화 운동과 합동세례식은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

최초의 합동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보병 제00사단 66연대 이상강 군목에 의해서 연대장 이하 153명이 세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72년 5월 24일 보병 제20사단에서는 김태동 군목(중령)의 노력으로 3,473명에게 세례를 베풀어 사도시대 이후 최대의 경사가 이룩되었다(김기태, 1985:294).

이렇게 계속된 군목의 선교사적 사명은 그 신자 수나 세례자들이 끊임없이 증가되어 1971년에서 1983년까지 13년간 349,041명의 세례신자를 배출함으로써 한국 기독교 선교사에 화려한 금자탑을 이룩했다(김기태, 1985:295).

논산훈련소 교회는 "제2훈련소 세례식 운동"이라는 글에서 전군 신자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군 신자화 운동에서 주목할 것은 군에서 신앙을 갖게 된 많은 젊은이들을 사회에 배출하였다는 것과 군 간부들이 복음화되어 그들이 장성으로 진출하는 등 고급간부가 되어 전군 신자화 운동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었다는 것과 또 전역 후 국가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진출하여 민족복음화 운동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b. 신병훈련소의 합동세례식

병사들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장 많은 숫자를 세례 줄 수 있는 곳은 신병훈련소이다. 육군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는 3,500-5,000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대형교회를 건축했다. 매월 1회 합동세례식을 실시하고 있다. "제2훈련소 세례식 운동"을 통해 꺼져버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불길을 다시 밝히고자 하고 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전군 신자화의 불씨에 다시금 불을 붙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990년대에 불기 시작한 진중세례식 운동이다. 이 일을 위하여 뜻있는 몇몇 군목들이 헌신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제2의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전으로 불붙은 고넬료와 같은 기독 장성을 군의 책임 있는 자리에 세워 주심으로 이 일이 다시 불타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제2훈련소를 통하여 전개된 세례식 운동은 이제 전군으로 확산되어 민족복음화의 시발점이 되었다(논산훈련소 교회, "제2훈련소 세례식 운동").

연무대교회는 1991년 1년간 26,70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1992년 6월 20일에 3,150명의 합동세례식을 거행했다. 1992년에는 6월까지 16,95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국민일보」 1992년 6월 27일자, p. 11). 1995년 한 해 동안 연무대교회는 약 65,000여 명의 세례신자를 배출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세례식 현황[9]은 아래와 같다.

횟수	날짜	수세 인원	후원	대표
1	95.1.14	3,541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2	2.11	4,552	예장합동 대구·경북 5개 노회/경북 남전도회(연)	박충응 목사
3	3.4	3,575	예장고신 총회	최혜일 목사
4	3.25	3,611	예장통합 총회	김기수 목사
5	4.22	5,765	미주지역 재향 군목회	임동선 목사
6	5.20	4,215	한국 사회문화 연구소	김명군 목사
7	6.10	4,021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한상면 목사
8	6.25	1,133	연무대 군인교회(1개 연대)	동영진 목사
9	7.15	3,628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박종선 목사
10	7.29	2,102	예장(합동) 산본중앙교회	이석호 목사
11	8.12	3,975	예장합동 총회 군목부,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신쌍동 목사
12	9.2	3,527	소망교회	김천수 목사
13	9.23	3,752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	이만성 목사
14	10.21	4,207	예장 대신 총회	황만제 목사
15	11.4	1,200	부평교회	홍은파 목사
16	11.18	3,870	예장통합 전국 여전도회(연)	이옥자 권사
17	12.2	2,221	기독교 대한 감리회 고아복교회	김옥순 목사
18	12.16	4,057	기독교 대한 감리회	김선도 목사
19	96.1.13	3,278	예장 합동 황혜노회	김정규 목사
20	1.27	2,477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성신교회	곽명자 목사
21	2.10	3,591	군복음화후원회 대구/경북지회	정영환 목사
22	3.9	3,829	군복음화후원회 대구/경북지회	정영환 목사

9) 논산훈련소 군종참모부, "제2훈련소 세례식 운동."

23	4.13	5,028	군복음화후원회 중부지회	김주원 목사
24	5.4	5,500	예장 통합 서울 동신교회	강동수 목사
25	6.8	6,534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26	6.29	3,855	군복음화후원회 영남, 남부지회	김태동 목사
27	7.20	5,498	예장합동 전국남전도회연합회	백성기 장로
28	8.17	4,058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
29	9.7	5,487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
30	10.12	1,631	기감남부연회 논산지방회	이철 목사
31	10.19	4,350	군복음화후원회 본회	곽선희 목사
32	11.23	4,389	기감남부연회천안남/울산지방회	고창수 목사
33	12.14	2,757	예장 대신 안양노회	노충원 목사
34	12.21	2,882	(예장합동증앙)여목연합회 여교역자회	조옥련 목사
35	97.1.11	3,154	(기감)전국 여교역자회 연합회	김영춘 목사
36	1.25	1,799	군복음화후원회 영남북부지회	김승렬 장로
37	2.15	2,645	대한민국 군목회	박성원 목사
38	2.22	3,430	군복음화후원회 중부지회	김상욱 목사
39	3.8	2,291	봉천제일교회(통합)	정세윤 목사
40	3.22	3,209	신성교회(통합)	이학수 목사
41	4.19	7,200	사단법인 군복음화후원회 영남북부지회(통합)	임은희 목사
42	5.17	5,423	평택대학교	조기흥 목사
43	6.14	5,139	기독교장로회 총회	백형기 목사
44	7.12	5,577	예장합동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하태초 목사
45	8.9	3,059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충기 목사
46	8.30	2,612	여의도순복음교회	이혜석 장로
47	9.21	3,370	충현교회	김재명 장로
48	10.18	3,649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윤혜경 권사
49	11.15	4,658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선교후원회	박태희 목사
50	11.29	1,569	여의도순복음교회	이혜석 장로
51	12.20	2,963	예장통합 동신교회	강동수 목사
52	98.1.10	2,310	(사)군복음화후원회 대구영락교회	안수도 목사

53	1.24	2,279	(사)군복음화후원회 영남북부지회(통합)	임은희 장로
54	2.7	3,131	(사)군복음화후원회 영남북부지회(합동)	김승렬 장로
55	2.2	2,94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민병억 목사
56	3.14	1,817	(사)군복음화후원회 영남북부지회(합동)	김승렬 장로
57	3.21	1,232	(사)군복음화후원회 영남북부지회(합동)	김승렬 장로
58	3.28	2,450	기감남부연회 논산, 강경, 연무지방 연합회	박한권, 권정흥, 정대현
59	4.18	4,328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성결대학교	성기호 총장
60	5.16	4,59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선교연합회	박태희 목사
61	6.13	4,353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강만원 목사
총계	217,716명			

연무대교회는 계속해서 합동세례식에 박차를 가하여 군목 파송 10개 교단별 순번제로 매월 4,000-7,000여 명의 합동세례식을 실시하고 있다. "1년에 20만 명 정도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데 그 중 10만여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는"(심명근, 1994:101) 사실은 고무적이다.

c. 육군기술병과학교의 합동세례식

필자는 10년 동안의 군목 복무기간 동안 대령 1명, 중령 1명, 소령 1명, 위관장교 13명, 하사관 62명, 사병 3,003명, 군인가족 40명 등 총 3,121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도표 2] 정두영 군목 세례집례 현황(1985-1993년)[10)]

10) 정두영, 「세례명부」 1985년-1993년.

연도	교회명	대령	중령	소령	위관	부사관	사병	군인가족
1985-1986	독수리교회 외						14	1
1986-1988	충성교회 외						19	24
1989	선공교회 외	1					63	2
1990-1992	햇불교회		1	1	13	62	2,906	13
1993	CRC교회						1	
1985-1993	계	1	1	1	13	62	3,003	40

그 중에서 3년여간 근무했던 육군기술병과학교에서 가장 많은 세례신자를 배출했다. 분기에 한 번씩 합동세례식을 거행하면서 400-700여 명씩 세례를 베풀었다. 가장 힘든 것이 몇 주 전부터 세례 지원자들에 대한 예비문답을 하는 것이었다.

d. 한국군대의 족속(집단개종)운동과 지휘관

한국 군선교 역사 가운데 많은 기독 장군들이 한국군대의 집단개종운동에 기여했다. 군목의 합동세례식에 대한 열정과 헌신, 부대 지휘관의 합동세례식에 대한 지휘관심과 배려, 민간교회의 합동세례식에 대한 관심과 후원은 삼위일체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

육군기술병과학교 복무기간의 경우, 필자의 복무 초기 수차례에 걸친 합동세례식 가운데 1990년 10월 10일에는 비교적 다른 때보다 많은 132명(학습자 31명 포함)이 참여했다. 이것은 당시 정비학 부장 대령 방극민 집사가 영관급 5명 기독 장교를 임명하여 영관장교들이 중대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직접 세례 지원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1990년 7월 11일 합동세례식

의 경우 다른 중대는 8-21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2중대의 경우 23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중대장이 햇불군인교회 집사인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중대에서 세례 받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일자	교회명	수세자				유아세례자	입교자	학습자	교회별계	당일총계
		장교	부사관	사병	군인가족					
90.4.11	햇불		4	13					17	17
90.5.23	햇불			12					12	12
90.6.27	햇불			6					6	6
90.7.11	햇불	3		64		2	1	1	71	71
90.10.10	햇불		8	99				31	138	138
90.11.14	햇불			2					2	2
91.1.23	햇불			28		2			30	30
91.2.20	햇불			8					8	8
91.3.13	햇불			20					20	20
91.7.28	햇불	4	14	294	4	4	2	127	449	449
91.11.17	햇불			344				18	362	430
	수송			60				8	68	
92.3.4	햇불	8	26	592				10	636	713
	수송	1		48				28	77	
92.6.17	햇불			536	1			5	542	721
	수송	3		70	1		1	40	115	
	동원			64					64	
92.9.16	햇불		10	446				20	486	659
	수송	2	3	70	1				76	
	동원	4		53					57	
	금성	2		38					40	
92.12.23	햇불			442				25	467	565
	수송			98					98	

무엇보다도 당시 장로였던 노재은 소장께서 학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휘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합동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필자의 군목시절 가운데에서 세례신자로 만드는 사역에 있어서는 황금시기였다.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자는 85-93년까지(8년간) 총 3,121명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중 단지 1991-1992년 동안 노재은 소장과 함께 벌였던 합동세례식을 통하여 무려 2,72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지휘관의 지원과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입증한다.

e. 한국군대의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영향 : 민족복음화

군에서의 족속운동(합동세례식)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군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민간교회에서 거두게 된다.

군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신자들은 부대지역 민간교회의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역 후 민간교회와 연결할 수 있다(2020운동). 군종부를 통해 전역을 앞둔 병사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민간교회 청년회에서 계속 편지를 쓰고 전역 후 초청의 형식을 취하면 그 교회 신자로 연결될 수 있다. 군에서는 씨앗을 뿌리고 민간교회에서 거두게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다.

한국군대의 사병들은 계속 군에 머무르지 않고 3년 만에 전역하므로 매년 20만 명씩 교체되고 있다. 군대가 계속 선교의 장이 된다면 군선교가 한국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한국군대 내에서 족속운동이 계속 일어난다면 한국군대의 군선교는 분명히 민족복음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Ⅳ. 족속(집단개종)운동과 군선교 방법 및 전략

선교에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군은 어느 다른 사회집단보다 특이한 집단이며 군대는 전략을 중요시하는 사회이므로 군선교는 군인집단에 대한 상황 이해와 그에 적응하는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선교사역에 있어서 선교전략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11]

A. 군에서의 개인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 소그룹운동, 족속(집단개종)운동

1. 개인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

대개 군이라는 환경에서는 집단구원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군은 반드시 집단적인 행동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군은 개인이 모인 집단이고, 대한민국 군대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12] 신앙문제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문제이고 영혼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개인적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

11) 이 점에 대해서는 Ro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6)을 참고.

12) 군인복무규율 제4장 제2절 제30조는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육군본부, 「군인복무규율」 참고.

군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군목이 이들 개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이 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과 같이 개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병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2. 군에서의 소그룹운동[13]

소그룹의 발견이야말로 성경적인 요청이요, 소그룹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14] "예수님은 이 점[소그룹의 방

13) 이 항목을 다루는 이유는 '소그룹운동'(Small Group Movement)이라는 소항목이 전체 주제인 집단개종운동(People Movement)과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단개종운동의 단점을 보완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풀러신학교의 교회성장학은 집단개종만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집단개종운동은 소그룹운동을 배제하지 않는다. 맥가브란의 집단개종운동도 소그룹의 다양성을 개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소그룹에서 집단개종운동으로 이어진다. 맥가브란이 설립한 풀러신학교 세계선교대학원에서는 소그룹연구를 정규과목으로 설정하여 가르치고 있다. Roberta Hestenes, *Building Christian Community through Small Groups*. A Syllabus for The Doctor of Ministry Seminar CF711 (Pasadena, Californi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9) 참고.

14) 모세도 소그룹을 활용했고(출 18:13-27), 예수님도 소그룹에 관심을 가지셨다(마 18:20). 예수님께서는 선교단을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셨다(막 6:7).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그룹이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고, 둘째 그룹이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이고, 셋째 그룹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시몬, 가룟 유다이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훈련」을 참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 시간을 떼어 두셨다. 12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핵심인물들이

법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선 선구자적인 위치에 계신다"(옥한흠, 1988: 193). 소그룹의 원리는 족속운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원리이며, 소그룹의 장점으로 족속운동을 도울 수 있다. 군선교에 있어서도 소그룹을 통한 방법이 절실히 요청된다.

수용성만을 감안하여 신교대에만 열중한다면 군대의 다른 그룹에 대한 복음전파에 게을리하게 된다. 비교적 수용성이 높은 사병들에게만 전념한다면 군대의 핵인 장교들에 대한 복음전파에 게을리하게 된다. 장군만으로, 장교만으로 전쟁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과 같이 다양한 그룹의 각자 역할에 의해서 거대한 군대집단이 이루어진다. 군대는 장교, 부사관, 사병들의 3가지 서클이 움직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인가족, 군무원 등 모든 그룹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결국 소그룹운동이 필요하게 된다.

군대 하부구조는 소그룹으로 조직되어 있다. 평시 11명의 분대 혹은 50여 명의 소대 소그룹이 각종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구대 혹은 내무반별로 소그룹이 함께 내무생활을 하고 있다.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예비군을 포함하여 1개 사단에 수만의 병력이 3개 도 이상을

다. 사복음서 저자들은 특별히 12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시간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소규모 제자단을 훈련시키시는데 3년 동안의 공생애 기간의 대부분을 투자하셨다.
사도 바울도 소수를 가르쳐서 영적 제자로 삼았다(고전 4:15; 딤후 2:1-2). 초대교회는 수많은 작은 모임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었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수의 그룹에서 교제를 가졌다(행 2:42, 46)(Verkuyl, 1970: 106 참고). 오늘날 교회도 신약시대와 같이 "가정교회"를 필요로 한다(Richards, 1970: 157).

행군 혹은 이동하면서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이 때 군목이 소그룹으로 흩어져 있는 이들 모두에 대해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 헬기지원을 받고 헬기에서 마이크로 메시지를 전하며 메시지 전단을 뿌린다 해도 역부족이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예배용 군종카드[15]를 제작하여 지휘계통으로 각 개 장병에게 보급하고 군대 제대의 소그룹을 이용하여 소그룹 지휘자(관)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군에서의 사병 소그룹운동은 기존 군대조직의 제대별 소그룹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 중대급 사고예방 점조직 군종병 운용이 필요하다. 각급 제대별로 독실한 신앙사병을 파악하여 중대급 군종병 혹은 신앙요원으로 잠정 운영할 수 있다. 자기 주특기 임무를 수행하면서 신앙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군 조직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 이들 중대급 군종병 혹은 신앙요원은 신앙 활동뿐만 아니라 사고예방 점조직 차원에서도 군에 유익한 잠정조직이다. 중대 혹은 대대급으로 기독교 사병들의 소그룹 신우회를 조직하면 군선교에 큰 도움이 된다.

3. 군에서의 족속(집단개종)운동

현대 선교전략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선교냐, 집단을 상대로 하는 선교냐로 구분된다. 개인구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집

15) 각 병사는 야전에서 성경, 찬송 등을 소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야전에서 효율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간편하게 찬송, 메시지, 기도문 등을 16페이지 정도로 인쇄한 "예배용 군종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면, 소그룹 지휘자(관)가 읽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미군 군종부에서는 야전 종교의식 책자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다.

단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 단위의 선교를 발전시키고 있다. 군대환경은 먼저 집단구원을 생각하게 된다. 군대는 집단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은 목적을 수행하기에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전도 방법보다 집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군은 개별적인 전도보다 집단기독교화 형태가 더 쉽고 수확도 크다. 군목의 개인 전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목은 집단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집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이란 사실 집단통제 수단에 의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집단의 힘과 집단의 방법과 함께 군대는 집단기독교화를 가능케 하는 요소가 많다. 가정, 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으며 불안 심리 가운데 있으므로 신앙을 소개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족속운동은 집단의 힘을 복음전파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군대의 힘은 단합된 힘이요, 집단의 힘이다. 이 힘이 복음전파에 사용되어야 한다. 장병 각자는 주변요소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족속운동을 벌이면 충분히 신앙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성경이 복음전도에 대해 고기 잡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방법은 낚시로 고기를 잡는 방법과 그물식 고기잡이가 있다. 군선교는 그물식 집단 전도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첫째는 좋은 어장이다. 사도 바울은 도시를 찾아다니며 전도했다. 둘째는 좋은 장비이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셋째는 좋은 어부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군대는 좋은 황금어장이고, 족속

운동은 좋은 군선교 장비이며, 군대에는 좋은 군선교 어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군은 반드시 집단적인 행동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군은 개인의 집단이고 신앙문제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문제이고 영혼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개인적 결정에 의한 집단적 활동을 생각해야 한다. 굳이 개인구원과 집단구원의 한계를 짓는다면 "개인적-집단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개인적 회심과 결정이 있은 다음에 집단적 방법에 의해서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다.

미국의 선교학자 조지 피터스(George W. Peters)는 "집단적, 개인적 결단(Corporate-personality Decisions)"을 말한다. 그는 "교회 성장은 가족, 부족 공동체와 사람 관계의 문화 속에서 집단적 개인적 결단에 의해 가장 잘 성장한다"(Peters, 1981: 234)고 했다. "집단적 개인적 결단"이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맥가브란의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과 같은 것이다. 최종적인 결단은 개인이 내리지만 개인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집단 안에서 상호의존적으로 개종하는 것이다. 군의 예를 들면 세례를 받겠다는 개인의 결단과 세례 지원에 의해 합동세례식 명단을 작성한다. 그러나 많은 각개 병사들이 세례를 받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집단 기독교화를 유도하는 지휘관과 기독 장교들이 군목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례를 받도록 고무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집단 기독교화의 모델이 되는 합동세례식의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로 민간교계에서 군대의 합동세례식에 대한 반대론을 3가지로 제기한다. ① 성숙신자론, ② 세례의식 중시, ③ 교육 후 세례냐, 세례 후 교육이냐 하는 것이다.

① 성숙신자론은 세례를 받으려면, 거룩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합동세례식을 통하여 쉽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② 세례의식을 중시하는 견해는, 세례의식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군대에서 2-3번 중복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동세례식이 숫자놀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당히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③ 민간교회에서는 성숙신자론과 관련하여 신자교육 후 세례를 베푸는데, 이것이 반드시 성경적인가 하는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성숙신자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베푼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영적인 신생아(Spiritual Baby)이다. 교회가 학습과 세례의 과정을 구분하지만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의 큰 차이는 없다. 학습문답을 그대로 고백하면 세례를 주어야 한다. 신앙고백이 분명하면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다.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대"(5-6절; 막 1:5) 사도행전 2장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38절) 하였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41절)고 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을 때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대"(행 8:12). 빌립이 내시에게 전도했는데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행 8:36) 하였을 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38)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고넬료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24절) "여러 사람"(27절)을 모아놓고 기다렸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48절)고 하므로 모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였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대"(33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대"(8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들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 설명할 때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5절)고 성령을 받았다. 그 날 그 시에 세례를 주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잠시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않고 즉시 세례를 받았다.

민간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려면 1년이 걸리는데, 군에서 그렇게 쉽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군대에서 세례 자질론만 주장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불교에서 수계를 함부로 주기 때문에 군에 입대한 처음에 많은 군인들을 불교에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세례의식 중시

군대에서 세례를 베풀든지, 민간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든지 세례를 많이 베풀면 된다. 단지 군대에는 세례를 많이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17절)라고 말한다. 이것은 세례 자체에 대한 반박이나 과소평가가 아니라 세례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다. 세례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고린도전서 7장 18-19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세례는 할례에서 이어진 것이다. 그러면 할례와 세례는 무엇이 다른가? 할례는 외적인 표시가 중요하고 세례는 내적인 신앙고백이 중요하다. 할례와 세례는 무엇이 같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과정이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푸는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세례에 포함된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고백이 중요한 것이다. 세례 자체는 형식이 될 수 있어도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수용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불교의 수계는 세례와 같이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 받게 하고 8번까지 줄 수 있다.[16] 군에서 수계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군 상황에서 수계 받은 장병을 다시 세례 주기는 어렵다. 군선교는 많은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

합동세례식의 형태를 취하면 과거 민간교회에 다닐 때 세례를 받지 못한 장병들을 포함해서 많은 장병들이 세례 받도록 유도하는 '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함께 세례 받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군목의 가장 큰 사역은 세례 주는 것이다. 수계를 받은 장병이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래도 한 번 세례 받은 장병은 자신이 교회의 한 구성원임을 항상 그의 생애에 생각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3) 신자교육 후 세례 대 세례 후 신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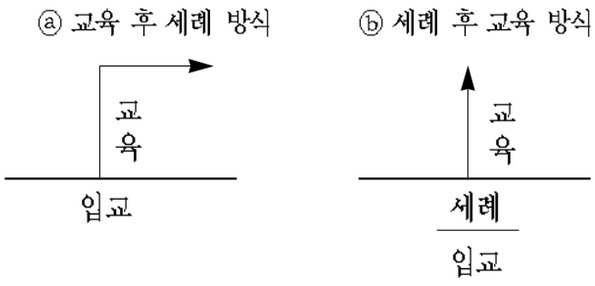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외적 선포(고백)이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실증되어졌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16) 수계의 의미는 세례와 같이 단회성이 아니라, 종교 활동의 재확신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개신교 안에서도 일부 교단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세례 받은 신자에게 침례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복음전파와 선교의 차원에서 세례를 다시 주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는지를 세례의 단회성과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즉 세상에서 분리되어 구별(성별)되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례 주는 것을 너무 높이고 있다. 세례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세례 받았다는 것이 중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례는 신앙고백에 근거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알란 R. 티펫(A. R. Tippett)도 이렇게 말한다.

> 세례로 인한 중생의 교리를 지지하는 어떤 성서적 근거도 없으며 회심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방종교에서 또한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세례의식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같이 보인다. 세례는 친교 단체의 입문일 뿐 아니라 개인의 고백과 믿음을 실증하는 방법이었다. 사람이 많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다(티펫, 1984: 45).

사도행전 2장 42절에 계속해서 "[세례 받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전혀 힘쓰니라"고 했다. 세례 받고 가르침을 계속 받은 것이다. 사도들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세례 받기 전에 교육을 강조하느냐 세례 후 교육을 강조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 방식을 강조한다. 세례에 합당한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도이고 ⓑ 방식은 신자들을 빨리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군대에는 ⓑ 방식을 수용한다. 아울러 군선교도 세례 이후 신자교육과 양육 및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B. "탐색의 신학"(Theology of Search), "추수의 신학" (Theology of Harvest), "선포의 신학" (Theology of Proclamation)

1. 탐색의 신학(Theology of Search)

맥가브란은 "씨 뿌림의 신학"[단지 씨앗만 뿌리고 관망하는 것[17]]에만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탐색의 신학은 "그 결과들이 선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끈질기게

17) 맥가브란은 선교의 "씨 뿌리기"(seed-sowing) 개념, 즉 객관적이고 측량 가능한 교회의 성장은 기대되거나 그 효율성을 측량하는 방법으로써 계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교회와 크리스천의 신앙으로 하는 모든 시도를 선교라고 하지 않고, 좁은 의미에서의 선교를 정의하면서 교회설립의 목표를 강조했다. Eddie Gibbs, p. 19.

부인하였다"(맥가브란, 1987:62)고 했다. 탐색의 신학은 복음을 위한 준비작업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결과를 강조하는 것을 공격했다. 단지 씨앗만 뿌리면 된다는 것이다. 탐색의 신학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디서든 말씀과 행동으로써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맥가브란, 1987: 66)으로 본다. 그래서 맥가브란은 탐색의 신학을 "현상유지의 신학"이라고 말한다. 결과에 신경을 쓰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옴으로 인해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겼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현상유지의 신학에 충실했다. 누가복음 13장 6-9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포도원지기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무화과나무는 나무가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했지 실과를 맺어야 하는 것에는 무관심했다. 역시 현상유지의 신학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2. 추수의 신학(Theology of Harvest)

맥가브란은 "탐색의 신학"에 반대하면서 "추수의 신학"을 강조하였다. 교회성장학과 집단개종운동은 추수의 신학과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마태복음 9장 37절의 말씀으로 "추수의 신학"을 설명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추수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한다. 한 구체적인 주민의 응답함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추수자의 필요를 인정하셨다. 희게 된 하나님의 들이다. 단지 그들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베어, 단을 묶고, 그의 창고 안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신다(맥가브란 1987: 69).

추수의 신학은 ① 수용, ② 성장, ③ 수확, ④ 책임의 의미를 내포한다. ① 수용의 의미라는 것은 앞에 나온 수용성의 원리에서도 밝혔고 뒤에 다시 언급되지만, 수확을 거두어들이려면 좋은 토양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다. 수용성이 높은 곳에서는 수확이 많다. 그러므로 많은 추숫단을 치켜들 수 있다. ② 성장의 의미라는 것은 열매를 맺으려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도 선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성장(Church Growth)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③ 수확의 의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수확을 거두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④ 책임의 의미라는 것은 단지 수확만 거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무리 정리, 끝맺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숫단을 들고 와야 하며 추숫단을 곳간에 거두어 들여야 끝이 난다는 것이다. 단지 믿게만 하고 신자만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회성장학의 양육과 제자훈련이 중요시되고 있다. 맥가브란의 추수의 신학은 책임의 신학이다. 이 책임의식은 미국인의 의식구조이며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3. 선포의 신학(Theology of Proclamation)

군선교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씨 뿌림의 신학은 무시하고 추수의 신학에만 민감할 수 없다. 추수의 신학을 생각할 때, 군이라는 환경은 뿌린 씨앗을 거두어들이고자 하여도 눈에 보이는 추수를 바라볼 수가 없다. 추숫단의 숫자를 셀 수가 없다. 실질적인 결과를 측정하기는 힘들다. 군목은 계속 한 부대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군목은 1-2년 만에 계속 부대를 옮기게 되고 장교신자들도 계속 부대를 이동하게 된다. 병사들은 계속 움직인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기가 힘들다. 군대의 장은 계속적인 양육의 과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합동세례식으로 세례 받은 숫자를 추숫단이라고 생각하면 몰라도 군목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얻지 못한다는 말은 아님] 결과를 보지 못한다. 그렇다고 씨앗만 뿌리고 방관하는 탐색의 신학에 머무를 수도 없다.

군선교는 추수의 신학과 함께 제3의 신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추수의 신학에 담긴 결과처리와 측정은 하지 못해도 생명력과 열심을 가지고[18] 군선교에 임해야 한다. 여기에서 필자의 용어로, 선포의 신학(Theology of Proclamation)을 생각하게 된다.[19] 탐색의 신학과 비슷하지만 차이는 있다. 탐색의 신학은 씨만 뿌리고 관망하는 것이고, 선포의 신학은 열심히 씨를 뿌리되, 단순한 씨 뿌림이 아니라 추수의 신학의 생명력과 열심을 가지고 가능한 한 씨 뿌림 이후의 사역에 최

18) 왕상 19:10; 렘 23:9; 롬 12:11; 고후 11:2; 갈 4:18; 딛 2:14 참고.

19) 이 점에 관해서는 전호진, 「선교학」(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1)에 나오는 "대화와 선포"(pp. 186-193)를 참고.

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것이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최선을 다하며 추수의 신학의 인간적인 측정요소는 하나님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다(고전 3:6-7). 많은 장병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주 많으므로 장병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결과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안일주의에 빠지면 탐색의 신학이 되고 만다. 추수의 신학의 생명력과 열심을 가지고 군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이것은 선포의 신학이 된다.

C. 군대 계급과 군선교 : 계급을 무시하지 않고……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한국군대는 부대 최고 계급의 지휘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우된다. "지휘관은 군사문제에 관하여 엄격한 책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부대 내의 종교 활동, 도덕 및 사기에 관하여도 책임이 있다.[20] 그러므로 군대 내의 모든 군종활동의 책임도 궁극적으로는 지휘관의 관심여하에 달려 있다. 지휘관들의 군종활동에 대한 관심은 부대의 사고예방, 필승의 신념을 위한 적극적 사고방식 등의 정신적 활동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신앙의 힘을 선용하고자 하는 부대지휘기술의 하나로 군종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선교활동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20) 육군본부, 「육군규정」 1-25;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 육군야전교범 16-100, p. 12.

종파간의 경쟁이 군의 단결을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가능한 한 부대장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부대장과 군목의 갈등이 지속되면 부대 내 선교 활동이 마비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부대장에게는 부대 신앙 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면서 신앙을 갖고 교회에 참석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부대장에게 전도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다.[21] 부대장은 부대 신앙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교, 하사관을 포함한 간부들을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면 부대 신앙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병사들도 군목과 자기 간부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을 알게 되면 군목을 자주 찾아오게 된다. 1명의 중대장을 얻는 것은 그 중대 병사들의 2/3를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맥가브란이 "사람은 인종, 언어, 계급의 장벽을 넘지 않고 신자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과 같이 군대에서 군인들은 계급적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군대는 계급사회이다. 계급을 무시할 수가 없다. 군인은 군복을 입은 군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군인 계급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전파를 위하여 계급을 선용하는 것이다.

21) 최학량 군목은 수도방위사령부 목사(군종참모) 재직시 당시 사령관이었던 최세창 장군을 세례 주었고, 1군단사령부 목사(군종참모) 재직시 불교를 믿었던 당시 1군단장 유성국 장군을 세례 주므로 지휘관에게 신임을 받고 군 선교활동을 소신껏 수행할 수 있었다.

D. 수용성(Acceptability, Responsibility) : 열린 문을 향하여……

맥가브란은 선교에는 사전에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토양시험방법(soil testing method)"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리를 군대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군목은 대개 부대별로 조직되어 있으나 교단 군선교위원회나 군인교회는 선교자원과 힘을 신병훈련소나 전방부대 등 위험부담이 높고 고된 훈련과 작업을 하는 부대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에 집중투자하려고 할 때 군대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병, 사병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하층계급에 얽매여 있으므로 이들을 복음화하는 데에는 고급장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교들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수용성의 원리로는 하층계급을 찾아 가야 하고, 계급을 무시하지 않고 회심하도록 유도하려면 상급자를 찾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고급장교의 협조와 동의 가운데 수용성이 강한 지역을 찾아가야 한다. 사실 수용성이 강한 곳은 위험부담을 지닌 곳이고 지휘관은 목사가 그런 곳에 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한국군대에서 목사는 수용성이 강한 곳을 특별한 제한 없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 군대의 장은 집단개종운동의 수용성의 원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다.

E. 야전식 선교방법(Field-style Military Missions Method) : 군대의 장벽을 넘지 않고……

선교는 피선교지를 사랑해야 한다. 군선교는 군대를 사랑하고 군대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여러 모양이 된 것"(고전 9:22)과 같이 군선교는 '군대 모양'대로 해야 한다. 군선교는 군대식이 되어야 한다. "군대 선교는 가장 강한 군인을 만들면서 동시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중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전호진, 1985:134). 선교를 위해서 군을 바꿀 수는 없다. 군 조직을 이용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리처드 허치슨(Richard G. Hutcheson, Jr.)이 잘 답변하고 있다.

군목이 되는 목회자는 결국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때 교회에 대한 그의 헌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교회에 대한 목회는 새로운 조건들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비효과적이고 열매 없는 목회 – 불행하게도 군대 내에서 그런 경우는 허다하다 – 가 새로운 조직에서 그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민간목회에 기반을 둔 목회의 형태를 그대로 군 조직에 적용시키려는 군목 때문에 야기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군대의 85%를 차지하는 사병들을 무시하고 소수의 장교나 하사관들과 가족들을 방문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가정 중심의 목회를 하는 군목, 2주 동안의 야외훈련에서조차도 교회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교시설 없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예배당에서만 행복을 느끼는 군목, 신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라고 군대 세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무실 중심의 군목활동을 하는 군목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목은 육체적으로 군대라는 하나의 조직에 몸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다른

조직에 머무르는 사람이다(허치슨, 1988: 39).

"야전식 선교방법"은 필자의 용어인데, "사람들은 인종적, 언어적, 계급적 장벽을 헐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맥가브란의 족속(집단개종)운동의 대전제에 부응하는 방법이다. "사회적인 장벽을 헐지 않고……" 즉, 군대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야전식 선교방법은 찾아가는 것(Go-Structure)이다.

V. 결 론

"교회성장의 아버지"에서 "교회성장의 사도"(맥가브란, 1987:11)라고 불리기도 한 맥가브란 박사(Dr. Donald A McGavran)는 동질집단의 집단개종을 통한 족속(집단개종)운동(People Movement)을 체계화하여 현대선교의 혁신적인 선교운동을 전개하였다. 맥가브란은 하나님께서 집단을 사용하신다는 데 관심을 갖고서 동질단위가 효과적인 선교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하나님의 다리"(The Bridges of God)가 된다고 하여 동질집단에 의한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을 역설하였다.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인종적, 언어적, 계급적인 장벽을 헐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였다. 선교적인 체험과 실제적인 연구를 통하여 거의 집단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집단개종에 있어서의 개종방법은 복수-개인적인, 상호의존적인 개종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미국적인 실용주의가 가미된 것은 사실이지만 19세기 서구 복음주의 선교이론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나아가 아시아 문화의 배경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맥가브란, 1987: 12)에 적용 가능한 것은 충분히 적용하여야 한다. 군대라는 선교의 장은 긍정적으로 볼 때 족속(집단개종)운동의 토양으로 볼 수 있고 이 토양에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전도를 고기잡이에 비유하셨는데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좋은 어장과 좋은 방법(도구)과 숙달된 어부이다. 군대는 좋은 어장이다. 좋은 어장은 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에 머물러야 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불평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민족의 가장 중요한 핵이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군대 전체 60만 명 가운데 매년 20만 명이 들어오고 20만 명이 군을 나가게 된다. 이들은 부모, 가정을 떠나 집단적으로 모여 있다. 그래서 군대를 '황금어장'이라고 한다.

좋은 어장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원리는 수용성의 원리이다. 수용성의 원리는 족속(집단개종)운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이다. 맥가브란은 저항적인 사람과 수용적인 사람을 구분하여 수용성이 강한 집단에 먼저 선교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이 모여 있으며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수용성의 원리를 따라 수용성이 높은 토양에 우선권을 두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 군인은 남달리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 때로는 생명을 내걸고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자들은 복음에 수용적이다. 춥고 어려운 전방부대, 훈련이 많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특수부대 병사들도 수용성

이 높다. 한 부대 내에서도 신병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이 복음 수용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수용성의 토양에 씨를 뿌려야 한다. 신병교육대에 집중 투자하여 가능한 한 세례를 많이 주고 가르쳐야 한다.

좋은 방법은 "추수의 신학"의 원리와 계급의 장벽을 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원리를 긍정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이 운동의 의도(정신)와 결과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군대는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원리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많다. 군선교는 "추수의 신학"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군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집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많은 양적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군대는 좋은 "추수의 신학"의 장이다. 군선교는 추수의 신학의 원리에 충실하여 많은 수확을 거두는 양적 선교에 힘써야 한다. 많은 씨를 뿌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고전 3:6) 추수를 하게 하신다.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은 열정적인 선교운동이다. 이 열정으로 군선교에 임해야 한다. 과거 전군 신자화 운동을 통해서 많은 추수를 거두어들였음과 같이 군대 상황 속에서 추수에 임해야 한다.

맥가브란의 이론에 의하면 군인은 계급의 장벽을 넘지 않고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 계급의 장벽을 무시하지 않고 군조직을 선용하여 복음전파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군대는 계급사회이므로 계급을 무시하지 않고 계급구조를 선용(활용)해야 한다. 군대는 맥가브란이 말하는 동질집단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군대는 맥가브란이 선교했던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이 많은 계급에 의해서 조직화된 목적(기능)사회이다.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군대는 동질집단임을 감안하여 그룹전도 전략을 적용한 군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군선교라는 명목 아래 군대의 계급조직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계급단위의 신앙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군대에는 불신자가 많이 있다. 그들은 군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며 누군가 군 조직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영향력은 크다. 군 조직의 성격을 복음전파에 선용하면 큰 결실이 있게 된다. 과거 전군 신자화 운동의 열심과 합동세례식(한국군대의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추수단을 되새기는 정신으로 복음전파에 전력해야 한다.

한국군대에 전군 신자화 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은 합동세례식의 형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22] 대규모의 전군 신자화 운동은 사라졌지만 뜨거운 열기가 사라진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중요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디에나 문제는 있다. 낚시질이 아닌 그물잡이식의 방법을 생각할 때 전군 신자화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합동세례식과 같은 집단개종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군대 토양에

22) 한국군대의 합동세례식은 맥가브란이 말하는 전형적인 족속운동(집단개종운동)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동세례식을 주축으로 하는 전군 신자화 운동은 성황리에 계속되다가 중단되었다. 그것은 맥가브란의 이론과는 관계없이 군대 내에서의 타종파(천주교, 불교)와의 불협화음과 군대 밖의 기독교계 가운데 군목을 파송하지 못하는 군소교단의 불평 때문이었다. 군소교단은 전군 신자화 운동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운동이며,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 종파운동이므로 국민총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적용 가능한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족속(집단개종)운동의 열정과 복음전파를 통한 영혼구원에의 헌신적인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용을 통하여 열심히 말씀선포에 충실할 때 한국 군선교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한국군대의 군선교는 한국의 민족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다리"이며 한국의 민족복음화는 세계선교의 첩경이 된다. 한신 장군 등에 의해 주도된 전군 신자화 운동은 군대 내에서 '합동세례'를 활성화시켜 단 번에 수천 명씩 세례를 주기도 했는데 이러한 세례식은 지휘관과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전형적인 족속(집단개종)운동이다. 족속(집단개종)운동의 판가름은 군대에서의 선교에 의해서 가능하다. 맥가브란의 족속(집단개종)운동은 한국군대의 군선교와 손을 잡아야 한다. 그것은 필자가 이 논문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강조한 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이다.

참고문헌

족속(집단개종)운동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1988. 제20장.

이재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서울: 보이스사, 1986.

전호진. "네비우스의 고유원리," 「한국교회와 선교」 전호진 편. 서울: 정음출판사, 1983.

———. 「선교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0.

간하배 편. 「교회성장의 신학」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6.

네비우스, 존. 「네비우스 선교방법」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맥가브란, 도날드 A. 「교회성장이해」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7.

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70.

맥가브란, 도날드 A. 「하나님의 선교전략」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Donald A. McGavran, *The Bridges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s*.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8/1975.

와그너, 피터. 「기독교 선교전략」 전호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와그너, 피터.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요한 역. 인천: 성서연구사, 1986.

티펫, 알란 R. 「교회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장중열 역. 서울: 보이스사, 1984.

헤셀그레이브, 데이비드 J. 편. 「신학과 선교」 전호진 역. 서울: 엠마오, 1986.

Allen, Roland.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6.

Brookover, Wilbur B and Erickson, Edsel L. *Sociology of Education*.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1975.

Gibbs, Eddie. *I Believe in Church Growth*. London: Hod-

der & Stoughton, 1990. Chapter 6-7.

Green, Michael.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85.

McGavran, Donald A. "New Methods for a New Age in Missions,"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October 1955, p. 402.

———. *The Bridges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s*.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8/1975. p. 125.

———. "What Is the Church Growth School of Thought." Scarritt College, Nashville, Tenn., June 1972, p. 10.

———. ed. "Church Growth Debate," Church Growth Bulletin. Nov. 1964, p. 10.

———. ed. *Church Growth and Christian Mission*. New York: Harper & Row, 1965.

McGavran, Donald A. and Arn, Winfield C. *Ten Steps for Church Growth*. New York: Harper & Row, 1977.

Nevius, J. L.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1885.

Nida, Eugene A. *Customs and Cultures*. New York: Harper and Row Pub., 1954.

Peters, George W. *A Theology of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 Zondervan Pub. Co., 1981.

Scott, John and Coote, Robert T. ed. *Gospel and Culture*.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9.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 p. 48

Tippett, Alan R. in *Crucial Issues in Missions Tomorrow*, ed. Donald A. McGavran, Chicago: Moody, 1972.

Tippett, Alan R. ed. *God, Man and Church Growth. A Festschrift in Honor of Donald Anderson McGavran*.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3.

Van Engen, Charles Edward. *The Growth of the True Church*. Amsterdam: Rodopi, 1981.

"Church Growth Debate," Donald A. McGavran. ed. Church Growth Bulletin, Nov. 1964, p. 10.

군선교

고용수. "군(軍) 선교교육론," 「軍陣神學」 육군본부 군종감실 편. 서울: 군복음화후원회, 1985.

김기태. 「군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보이스사, 1985.

김홍태. "군 신자화 운동이 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5.

논산훈련소 군종참모부. 제2훈련소 세례식 운동.

논산훈련소 군종참모부 월말보고서. 1990년 1-12월.

심명근. "4천여 명 신병 세례받고 거듭 태어나다," 「신앙계」 1994년 5월호, p. 98.

양영배. "전군 신자화 운동과 그 현황," 「기독교사상」 1974년 10월호.

육군본부. 「군인복무규율」.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 육군야전교범 16-100.

육군본부. 「육군규정」 1-25.
육군본부, 「팜플렛 165-19(1975. 9. 30): 육군군종사」.
육군본부, 「팜플렛(1985. 1. 20): 인사보」.
육군본부 군종감실 편, 「군종」.
육군본부 군종감실 편, 「군종운영계획(1990년도)」.
이장식. "전쟁과 그리스도인 – 교회사적 고찰," 「軍陣神學」 육군본부 군종감실 편. 서울: 군복음화후원회, 1985.
전호진.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본 군진신학," 「軍陣神學」 육군본부 군종감실 편. 서울: 군복음화 후원회, 1985.
정두영. 「세례명부」 1985년 –1993년.
나일선. 「오늘의 아시아선교」 윤두혁 역. 서울: 보이스사, 1980.
허치슨, 리차드. 「교회와 군선교」 박상칠 역. 서울: 실로암, 1988.
Hestenes, Roberta. *Building Christian Community through Small Groups*. A Syllabus for The Doctor of Ministry Seminar CF711. Pasadena, Californi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9.
Richards, Lawrence O. *A New Face for the Church*. Grand Rapids, Mich.: Zondervan Pub. House, 1970.
Verkuyl, J. *The Message of Liberation in our Age*.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 Co., 1970.